

17/02/19(주) 주일예배 / 제목 : 악한 곳에서도 신앙을 지킨 오바다(왕상 18:3~4) p.547

(3)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악한 곳에서도 신앙을 지킨 오바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지금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여년 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것을 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분의 말씀대로 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렵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여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이 주장하기를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 사건, 홀로코스트(Holocaust)에 대한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꼭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은근히 비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을 거부하려는 도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도덕주의가 이미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가치관까지 잠식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선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독할 정도로 간교해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곳에서 선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마다 난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다를 주목하면 그에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입니다.

**본론** /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1.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북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으로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세습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자격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쫓대가가 없고, 가볍고 경솔했으며, 리더쉽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도 이세벨이라는 굉장한 독종을 만나서 더욱 왕으로서 통치력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대대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성격마저도 매우 잔인하고 간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를 어떻게든 꺾어 제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근성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왕과 왕후 아래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볼 보듯이 뻔합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강압적인 우상숭배 정책에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합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16장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십시오. (16: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한 33절도 보십시오. (16:33)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이 넘는 가뭄으로 심판하셔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 밑에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아합 왕의 궁내 대신으로 섬긴 오바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의 저자인 오바다와 동명이인(同名異人)입니다. 오바다는 성경에서 딱 한번 밖에 소개되지 않음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들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지면을 할애하여 오바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바다는 누구입니까?

오바다는 아합 궁에 유일한 방부제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바다 자신을 일컬어 (12절) “... 당신의 좋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섬기고 경외하며 사랑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중’,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오바다는 이름의 뜻대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으로써 크게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오바다는 어두운 시대에 악한 곳에서 악한 자와 함께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강렬한 진리의 빛을 발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악한 왕 밑에서 오바다가 궁내 대신으로 봉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오바다의 신분은 아합 왕의 궁내 대신인데 궁내대신이란 아합 왕의 궁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아합 왕의 궁내 대신으로서 아합 왕의 충성스런 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전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현장에서 오바다가 우상숭배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다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극악무도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사는 왕궁에서도 신앙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바다가 살던 시대나, 대신으로 있던 아합 궁전에는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도망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린 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경건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곳에 몸을 담고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니면 그 악과 싸워서 순교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여야 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바다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궁정에서의 그의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그런 내면의 음성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가 끌려간 애굽은 온통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이방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마 요셉 혼자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끌려가서 포로생활했던 바벨론, 특히 바벨론 궁전은 갖가지 우상숭배로 더러워져 있는 구조적으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생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자살을 생각지도 않았습니. **삭개**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혐오하고 비난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세리장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자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해주겠다는 신앙의 큰 변화를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에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17: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은 구조적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아예 별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겨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몸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봅시다. 얼마나 구조적으로 악합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깨끗하지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싫어서 해외로 도망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구조적으로 악할지라도 경제에 뜻을 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바다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썩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면서 궁내 대신의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 요셉과 다니엘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밖에 없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신임을 받고 자기 입지를 지키려면, 정직하고 탁월하며 모든 면에서 흠잡을게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일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족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바다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1.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 2. 도전적인 악에는 대범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전적인 악이란 신앙을 뿌리 채 흔들어 놓는 악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을 더럽히려고 공공연히 도전하는 악입니다. 오바다도 그와 같은 도전을 받았습시다. 왕후 이세벨이 모든 백성들로 바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이에 반항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략 수천 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이 결집해서 왕과 왕후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습시다. 그러자 피에 목말라 하던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선지자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했습시다. 그런 끔찍한 상황을 오바다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궁내 대신으로 있기에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칼을 피할 순 있었지만, 선지자의 신분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시다. 하나같이 다 끌려가서 순교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그가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오바다의 양심은 틀림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나 혼자 경건하면 되겠는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갈등 끝에 그는 ‘가만히 있어선 안되겠다.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시다.

오바다는 자신의 특권을 자신의 영락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선용한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고 했습시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오바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밝히기를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했습시다.

그는 혼자 경건해야 될 때와 행동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가릴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와 분명히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군데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생명 걸고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바다는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악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를 포기해 버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폭음을 강요당할 때, 뇌물로 회유를 당할 때, 탈법을 획책하도록 유인 당할 때, 비양심적으로 거래하도록 유혹할 때, 더러운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바다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숨겨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 굴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도전적인 악 앞에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태도로 반응하면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신앙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요 16:33)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긴 이김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바다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오바다는 평신도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던 자이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비상한 환난의 때를 깨어 주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곳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오바다 같은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바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오바다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악한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요약정리** /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1.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도전적인 악에는 대범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